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1期(2026.03.13) WWW.MINGHUI.ORG

한글판 1045호 minghui.or.kr



▲ 3월 7일, 캐나다 오타와 파룬궁수련자들이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해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주요 내용

- 【편집부】 세계 파룬따파의 날 원고모집 공지 '진선인의 아름다움 공유하기'
- 【중국소식】 중국 의사 "생체 장기적출 시술자와 수혜자의 비참한 운명"
- 【수련교류】 당초 우리에게서 모두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 【시사평론】 모함 이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른다
- 【시사평론】 안하무인에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까지

〈목차〉

■ 명혜편집부

세계 파룬따파의 날 원고모집 공지 ‘진선인의 아름다움 공유하기’ .. 3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5

■ 중국소식

중국 의사 “생체 장기적출 시술자와 수혜자의 비참한 운명” 11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6

■ 수련교류

당초 우리에게는 모두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18

자료점과 법공부 팀을 세우는 과정에서 심성을 제고하다 22

다른 수련생을 정념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교류 28

RTC 논란에 직면해 안으로 찾을 기회를 잡다 30

원고모집 교류 중 언니의 몸에 나타난 기적 38

중국에서 선원 공연 시청 시 위성 신호가 교란받은 것에 관해 43

특별한 경험, 선원 자원봉사를 하며 47

‘파룬따파하오’를 크게 외치자 102세 장인어른이 기적적으로 회복하다 54

■ 시사평론

모함 이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른다 57

안하무인에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까지 60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파룬따파의 날 원고모집 공지 ‘진선인의 아름다움 공유하기’

[명혜망]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연례 행사인 명혜망 ‘5·13’ 원고모집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2026년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이 세상에 전해진 지 34주년, ‘전법륜(轉法輪)’ 출판 31주년이 되는 해이며,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공을 말살하려 한 정치 운동이 27년째 지속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특별한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당신의 필치와 색채, 음표로 평범하지 않은 여정을 함께 증언해주길 요청한다.

[공모 주제: 우리들의 이야기]

- 당초 우리는 왜 잇따라 대법에 입문했는가?
- 무엇이 우리를 대법 수련에 남게 했는가?
-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공)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가?
- 우리는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 27년의 피비린내 나는 풍파를 겪으며 파룬따파와 사부님에 대한 감사가 왜 더욱 이성적이고 깊어졌는가?
- 현재 파룬공은 중국 내 어떤 업종과 지역에 존재하는가?
- 해외 인권 단체 인사가 대법제자들에게 “중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중국과 중국의 정신, 중국의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더 많은 사람이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자.

[응모 형식]

체재에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환영한다.

- 문학류: 개인 수련 이야기, 소감, 시, 인터뷰, 지역별 에피소드 모음
- 예술류: 사진, 그림, 서예, 전각(전문적인 설명 첨부 요망)
- 멀티미디어: 독창적인 음악 작품

‘세계 파룬따파의 날’은 인류 공동의 축제다. 전 세계 각 민족 대법제자와 진선인을 사랑하는 각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투고해 함께 축하하고 찬양하며 인생의 기쁨과 희망을 나누길 환영한다.

[투고 방식]

1. 공식 플랫폼: 명혜망 투고 플랫폼에 접속해 9번 항목(원고/법회 투고)을 선택
 2. 개인 정보: 실명, 거주 국가, 도시 및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명시
- 참고: 중국 내 수련자는 안전을 고려해 가명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마감 일자]

2026년 4월 15일 (참고: 사진 부문 작품 접수는 올해 ‘5·13’ 축하 행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됨)

[함께 증언합시다]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인간세상에 희망을 전파하자.

명혜망 편집부

2026년 3월 6일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6년 1월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윌턴 매너스(Wilton Manors)시가 선원(神韻)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2026년 2월을 ‘선원 예술의 달’로 선포한 데 이어, 또 다른 4개 도시 시장이 시의회를 대표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선원예술단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고 남부 플로리다를 다시 방문해 미덕, 신앙,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둔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에게 깊은 예술적 감동을 선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4개 도시는 핼런데일 비치(Hallandale Beach), 펨브로크 파인스(Pembroke Pines), 오클랜드 파크(Oakland Park), 힐스버러 비치(Hillsboro Beach)다.

중국 전통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선원예술단 산하 8개 예술단이 유럽, 북미, 호주, 아시아에서 흥행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18일 저녁, 프랑스 암네빌에서 2026 시즌 첫 포문을 연 선원은 크리스마스과 1월 1일, 설날 연휴를 거치며 중국 고전무용, 현장 오케스트라, 독창적인 3D 스크린, 화려한 의상으로 5천 년 신전(神傳)문화의 정수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시공을 초월해 전통 가치의 아름다움과 힘을 느꼈다. 세계 각지의 많은 중국인은 선원을 관람한 후 단순한 시청각적 향연을 넘어 영혼을 정화하고 계발하는 경험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진심으로 “선원이 중국 전역에서 공연되길 바란다”, “탁월하고 비범하다”, “신의 기적을 느꼈다”, “내면 깊은 곳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일깨웠다”고 입을 모았다.

3월 1일 오후, 데이터 엔지니어 류(劉) 씨는 호주 골드코스트 예술센터에서 선원신기원예술단의 여섯 번째 공연을 관람했다. 그

녀는 관람 후 벅찬 감동을 전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국내(중국)에서도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선원이 중국에서 공연하게 된다면 각 성(省)마다 공연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술단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은 예술단이 중국에서 동시에 공연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못 신이 하계(下界)로 내려오는 장면을 봤을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라며 “사실 다들 마음속으로는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큼니다. 고대나 과거 신전 문명이 있었던 시기처럼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묘사된 것처럼 선악의 대립 속에서 사람들이 선(善)을 따를 때 느끼는 그 평온하고 활달한 느낌 말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6년 3월 4일,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공산당(중공)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속했다. 특히 2025년에는 여러 명의 고령 파룬궁수련자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다. 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중국을 ‘특별관심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중공이 국제종교자유법이 정의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공 정부는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종교 단체의 신도들과 파룬궁수련자들을 투옥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7세 수련자 자오윈구(趙雲古)는 2025년 8월 8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빈현 구치소 경찰에 의해 하얼빈 신젠 감옥으로 납치돼 불법 구금됐다.

전통적인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 행사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개최됐다. 행렬은 정오에 캐나다 연

방법원을 출발했다.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도 퍼레이드 대열에 합류해 관중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1965년 오타와에 정착한 아일랜드계 톰 플러드 가족도 천국악단의 연주에 찬사를 보냈다. 플러드는 “정말 훌륭하고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라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제창하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가치관이 매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문화가 이곳에 모이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라며 “대단한 퍼레이드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 부처 직원인 드니-폴 클루티에는 “그들의 연주를 직접 보게 돼 영광이다. 호흡이 잘 맞고 대열에 함께해서 정말 좋다”라고 말했다. 그는 천국악단이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며 “연주팀이 많지 않았는데 그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이 시대에는 진선인의 이념과 가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핀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이 헬싱키에서 열린 ‘요가 문화축제(Yoga Festival Helsinki 2026)’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부스에서 파룬궁이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을 소개하고, ‘진선인’ 원칙을 따르는 수련 체험을 공유해 수많은 시민의 환영을 받았다. 동시에 수련생들은 중공 정권이 국가 기구를 이용해 파룬궁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생체 장기적출을 자행하는 범죄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 부스에서 수련생들은 평화로운 5장 공법을 시연했고, 일부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오가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박해 반대 서명을 받았다. 주최 측은 핀란드 파룬따파불학회(法輪大法佛學會)를 위해 한 시간의 공법 교육 시간을 배정해 주었고, 현장에서 10여 명이 공법을 배웠다. 입구에서 등록을 담당하던 직원 한 명도 연공

에 참여했다. 다 배운 후 그는 팔과 상체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대만 신주현 신푸진의 연례행사인 ‘천천일’(天穿日) 등불 거리 퍼레이드가 2026년 3월 7일 저녁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총 55개 팀, 약 2천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 요고팀, 선녀팀도 이번 행사에 초청됐다. 세 팀의 인원은 약 200명에 달해 장관을 이뤘으며, 이번 퍼레이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관악단으로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원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천잉러우(陳英樓) 진장은 천국악단의 참여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제가 알고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은 모두 매우 선량하고 열정적이에요. 연공이 심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서로 교류하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일요일, 뉴질랜드 북섬 도시 왕거누이(Whanganui)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랑기티케이-왕거누이 다문화 이사회 비서이자 파룬궁수련자인 티아나 뉴(Tiana New)가 지역사회에 다문화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왕거누이 국회의원 칼 베이츠(Carl Bates)와 앤드류 트라이프(Andrew Tripe)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수많은 부스 중에서도 파룬궁수련자들의 부스는 유독 눈길을 끌었다. 일부 시민은 현장에서 동작을 따라 하며 심신의 평온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한편 강당 내부에서 열린 ‘진선인 미술전’은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성황과 중국 본토에서 중공에게 박해받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마오리족 장로 제이슨 헤레위니(Jayson Herewini)는 미술전을 관람한 후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그는 우선

신앙과 경험을 공유해 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저와 파룬따파의 수련 및 신앙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했다. “저의 조상과 여러분의 조상이 함께 그들을 수호하고 보호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사랑과 평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칙에 대해 트라이프 시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파룬궁수련자처럼 항상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들 겁니다.” 오클랜드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장은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비, 평화, 사랑을 제창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며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1월 하순부터 정월대보름까지 호주 멜버른 서부, 동부와 시내 중심가에서 멜버른 화교 및 베트남계 지역사회가 주최하는 여러 차례의 신년 경축 행사가 열렸다. 행사 기간 파룬궁 단체가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그들은 독특한 공연복을 입고 밝은 색채와 멋진 연주로 현지 축제에 축복을 보내고 흥겨움을 더해 관객들의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그중 2월 16일 선달그믐 밤에는 멜버른 서부 브레이브룩 지역에서 북적이는 축제가 열려 각 민족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파룬궁 요고(腰鼓)팀이 개막 공연에 초청됐으며 이후 여러 차례 행사장을 돌며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금빛 공연복

은 매우 눈길을 끌었고, 수련자들은 정연하고 힘찬 북소리에 맞춰 대형을 변경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진을 찍게 했다. 그들의 멋진 공연은 당일 밤 행사의 커다란 하이라이트가 됐다. 2월 28일과 3월 1일 서부 풋스크레이 공원에서 열린 2026 베트남 신년 카니발에서는 파룬따파 천국악단이 연주하는 곡이 웅장하고 힘차 신년 축제에 장엄하고 고무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무대 아래 관객들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며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3월 1일과 2일, 호주 노스 퍼스 로터리 클럽이 주최한 연례 ‘하이드 파크 페스티벌(Hyde Park Festival)’이 노스 퍼스의 명소 하이드 파크에서 이틀간 열렸다. 퍼스 파룬궁수련자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부스에서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를 전했다. 또한 중공의 대법 박해 진상을 알리고 무대에서 5장 공법 시연, 용춤, 요고, 무용 등을 선보여 관중의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한 시민은 “진선인 가치관은 우리가 영원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건 그린(Tegan Green)은 곧장 파룬따파 부스로 다가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파룬따파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확실히 더 많은 진실, 선량,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100퍼센트 찬성합니다.” 마이크(Mike)는 파룬궁 수련이 매우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다. “진선인 가치관은 우리가 영원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중국 수련자들이 겪는 박해를 알게 된 그는 수련자들을 격려하며 강해지라고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공법을 계속 수련하세요.” 그는 박해가 끝나기를, 애초에 박해가 없었기를 희망했다.

중국 의사 “생체 장기적출 시술자와 수혜자의 비참한 운명”

[명혜망](정연 기자) 생체 장기적출은 중국공산당(중공) 체제 내에서 오랫동안 자행됐다. 이 피비린내 나는 거래가 이뤄진 후,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은 정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까? 또한 장기이식에 참여한 의사들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한 중국인 노령 의료인의 증언을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본다.

1. 생체 장기 수혜자들, 거액 들고도 병마의 고통은 배가돼

익명으로 명혜망에 제보한 이 의료인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생체 신장이식 수술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1988년, 그는 생체 장기적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한 의사가 이미 젊은 남성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한 상태였고, 다른 의사는 그 사형수의 각막을 적출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 의료인이 목격한 생체 장기 수혜자들의 사망 사례와 괴질에 걸린 실례들이다.

사례 1: 생체 신장이식 후 곰팡이 감염으로 3명 사망

1986년, 이 의료인은 한 의학 잡지에서 병리와 주임이 발표한 ‘신장이식 후 곰팡이 감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3례 보고’라는 논문을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3명 중 1명을 부검해 신장과 갑상선 등에서 조직 병리 절편을 만들어 검사했다. 같은 해 이 의료인은 업무 중 이 조직 병리 절편을 직접 확인했는데, 고배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사망자의 신장과 갑상선 조직 내에서 가늘고 긴 곰팡이 균사가 왕성하게 증식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사례 2: 생체 신장이식 후 첨규콘딜로마 합병증 발생

생체 신장이식을 받은 한 남성 환자가 병이 재발해 다시 입원했다. 그의 생식기 주변에 많은 사마귀가 자라나 진료를 요청한 상태였다. 당시 30대였던 이 환자는 매우 수척하고 피부가 창백했다. 생식기 부위에 밀집된 사마귀 발진이 있었고, 서혜부와 겨드랑이 등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양쪽 젖꼭지에는 약 3×1cm 크기의 사마귀 모양의 굳더더기 살이 생겨 줄기에 매달린 채 몸을 움직일 때마다 흔들거렸다. 임상 진단 결과는 ‘첨규콘딜로마(Condyloma acuminata)’였다.

첨규콘딜로마(곤지름)는 성병의 일종으로 보통은 생식기나 요도구, 질 주변에 국한되지만, 이 환자처럼 전신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특히 남성의 젖꼭지에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환자는 신체가 너무 허약해 레이저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사례 3: 생체 신장이식 후 대상포진 합병증 발생

한 남성 환자가 생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지 10일 만에 가슴과 등 부위에 수많은 작은 수포가 생겼다. 수포는 빠르게 커지며 서로 융합돼 표피를 들어 올렸고, 수포가 터지자 넓은 부위의 진물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의료인이 목격한 환자의 등에는 약 11×9cm 크기의 진물 부위가 있어 똑바로 누울 수도 없는 상태였다.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표피의 보호 기능 상실과 항거부제 복용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언제든지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매일 소독하고 약을 발랐지만 상처 치유는 매우 느렸고 환자의 고통은 극심했다.

제보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례들은 중공의 장기적출 초기 단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한다. 생체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은 타인의 생명과 장기를 약탈한 것이며, 사람을 죽여 목숨을 잇는 것은 극악한 죄악이기에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생체 장기이식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정보가 담긴 장기 조직을 자신의 몸에 강제로 집어넣어, 자신의 신장을 두 사람의 정보가 뒤섞인 변이 혼합체로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환이 무궁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격한, 일부 이식 환자들이 거액을 쓰고도 고통을 배로 겪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2. 생체 장기적출 시술자들에게 닥친 불운

사례 1: 비뇨기과 주임 부부, 암의 고통 속에서 잇따라 사망

어느 비뇨기과 주임은 1980년대 초부터 생체 신장 적출 및 이식 수술을 시작했다. 그는 외부 병원에 이식 기술을 전수하고 많은 연수생을 길러내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한번은 나이 많은 내과 의사가 그에게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게 두렵지 않느냐?”(장기를 적출당한 청년들을 지칭)라고 묻자, 그는 “이 방법으로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2009년, 이 주임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연결 부위에서 계속 피가 새어 나와 두 번째 개복 수술을 했으나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해

사망했다. 그가 죽고 10년 뒤, 그의 아내 역시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으나 효험 없이 곧 세상을 떠났다.

사례 2: 시술 의사,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고통받아

제보자는 “우리 병원의 한 의사는 1988년 내가 보는 앞에서 남성 죄수의 각막을 생체로 적출했다. 2020년, 그는 갑자기 뇌졸중이 발병해 몸 한쪽이 마비됐다. 그는 매우 낙담해 하며 왜 자신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자살까지 생각했다. 지금도 그를 보면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에 의지해 단지 안을 거북이걸음으로 느리게 걷고 있다”라고 전했다.

3. 비도덕적인 의료 수요와 무신론이 만든 살인 의사들

중국에서 비도덕적인 의료 수요는 생체 장기이식이라는 사악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보급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무신론 사상에 세뇌된 수많은 중국 의료인과 의료 단체는 살인과 구인(救人)의 본질적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 시술에 참여하는 많은 의사는 자신들이 공급자의 장기를 탈취해 생명을 끝냈을지라도, 수혜자의 생명을 연장해 줬으므로 ‘승고한 의료 행위’를 했다고 착각하며 자신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여기에 고액의 경제적 보상까지 따르자 그들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거나 ‘원한에는 원인이 있고 빛에는 주인이 있다’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보편적 인과응보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다.

살인 행위로 인한 각종 재앙과 응보가 닥쳤을 때, 이 의사들은 심신이 극도로 고통스러우면서도 무신론의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 인과관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

4. 중공의 대규모 생체 장기적출, 21세기 초부터 시작돼

2006년 5월 3일, 뉴욕의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com)는 기자 테리 밴더하이든(Terry Vanderheyden)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 중공 군의관의 폭로에 따르면, 그는 6만 명 이상의 수감자와 관련된 위조 서류를 목격했다. 수감자 대부분은 파룬궁수련자였으며, 서류에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했다고 허위 기재돼 있었다.”

해당 군의관은 장기이식 의사들의 눈에 장기적출 대상자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동물로 여겨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 1~2례를 할 때는 의사들도 떨리고 긴장하지만, 수천 건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산 채로 장기를 적출하고 산 사람을 화장하는 일에 그들은 이미 무감각해졌다”라고 밝혔다.

맺음말

옛사람들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고 했다. 사회 도덕의 성벽이 허물어지면 성 안의 국민은 보호막을 잃게 된다. 중국의 도덕적 지주이자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받드는 수많은 파룬궁수련자가 학살당할 때, 대중이 고개를 돌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방관하는 사이 재앙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2026년 현재, 중국에서는 수많은 청소년이 실종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지만 공정함을 찾을 길은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공 권력자들의 회춘과 연명, 심지어 150세까지 살게 하겠다는 도덕적 한계가 없는 프로젝트가 인륜을 저버린 채 밤낮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중국의 청년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는 이제 평온한 삶을 꿈꾸는 모든 중국인이 마주해야 할 생사의 문제가 됐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치치하얼시 파룬궁수련자 리춘화(李春華·62세)가 4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2025년 8월 21일 파룬궁수련자 리춘화가 우룽 파출소 경찰에게 끌려가 쇠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30여 시간 동안 고문당해 허리 부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18일 후 리춘화는 ‘처분보류’로 집으로 돌아왔다. 9월 중순 리춘화는 치치하얼시 검찰원에 관련 경찰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10월 25일 전후 룡사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대대와 우룽 파출소 경찰은 보복하기 위해 리춘화를 납치했다. 국보 사람들은 재판 없이 바로 감옥으로 보낸다고 떠들어댔다. 리춘화는 치치하얼시 젠화구 문화국에서 근무하며 미술 사진 문학 창작에 종사했다. 그녀는 국가급·성급·시급 우수 미술교사였고 그녀의 사진 작품은 국가급·성급·시급에서 수상했으며 문학 작품도 <산문> 월간에 발표됐다.

산둥성 지난시의 90세 파룬궁수련자 왕환원(王傳文)이 지난시 리청구 공안분국 경찰과 검찰원의 공모로 모함을 당했다. 2025년 12월 22일, 지난시 장추구 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0위안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2026년 3월 3일, 장추구 법원은 판결문을 왕환원에게 전달하고 강제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하지만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혈압이 너무 높아 감옥 측에서 수갑을 거부했다. 왕환원은 부당한 판결에 결코 복종하지 않으며, 지난시 중급법원에 항소해 정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산둥성 서우광시 파룬궁수련자 리성싱(李升星), 쑤푸메이(孫福梅), 푸징춘(付景春)은 2026년 2월 13일 서우광시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중 푸징춘은 3년 4개월, 리성싱은 3년 6개월, 쑤

푸메이는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현재 리성싱과 쑤푸메이는 웨이팡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2025년 8월 26일, 서우광시 공안국 국보 대대 경찰은 파출소 경찰과 결탁해 리성싱, 쑤푸메이, 푸징춘 등 여러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했다. 이들 경찰은 기본적으로 4인 1조로 움직였으며, 경찰복을 입지 않고 개인 차량을 몰며 법을 집행하면서 오히려 법을 어겼다. 리성싱과 푸징춘은 서우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쑤푸메이는 웨이팡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6년 1월 22일, 서우광시 법원은 세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으며, 가족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산둥성 웨이팡시 창러현 파룬궁수련자 멩셴창(孟憲強)은 2025년 7월 29일 납치,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그는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은 후 2026년 2월 6일 산둥성 감옥으로 납치됐다. 멩셴창은 58세로 웨이팡시 창러현 흥허진 구통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돼 심신에 혜택을 얻었다. 멩셴창은 신앙을 견지해 부당한 강제노동,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산둥 제2 노동수용소, 산둥성 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산둥성 린이시 이수이현 구촌 파룬궁수련자 덩젠차오(丁健超)는 지난해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5년 8월 21일 진상 자료를 전하다가 지난 제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지난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산둥성 허쩌시 쥐안청현의 82세 파룬궁수련자 타오화중(陶華中)은 여러 차례 감옥에서 박해를 당했다. 2008년 그는 8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고 타이안 감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2024년 12월 또 4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고 지난 감옥에 감금돼 박해를 받았다. 현재 그는 박해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으나 감옥 측은 가족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우리에게서 모두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

글/ 중국 대법제자 진석(珍惜)

[명혜망] 박해가 막 시작된 초기, 사악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고 안전에도 주의할 줄 몰랐다. 무수한 사람 마음을 닦아야 했고 각종 고비를 넘겨야 했기에, 험난한 길을 걸으며 비틀거리기도 하고 많은 일을 잘못 처리해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사부님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모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성(省) 정부와 베이징 천안문으로 달려가 법을 실증했다. 청원하고 진상을 알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납치돼 매를 맞아도 원망이나 후회가 없었다.

당시 사악한 환경 속에서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받거나 납치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을 잊은 듯 서로 소식을 전했다. “○○수련생이 납치됐어요”라는 소식은 큰바람처럼 신속하게 지역 곳곳으로 퍼졌다. 모든 파룬궁수련자가 행동에 나섰다. 어떤 이는 납치된 수련생의 가족을 찾아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사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사악한 자들에게 맞섰고, 어떤 이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 즉시 인터넷에 폭로했다. 전용 휴대폰으로 악질 경찰과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으며, 해외 수련생들도 즉시 전화를 걸어 도왔다. 더 많은 이들은 집중적으로 발정념을 하고 지역에서 편집한 진상 자료를 배부했다. 정체(整體, 공동체)로 협조해 형성된 힘은 거대했으며 사부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셨다. 한번은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한 수련생이 파출소에 납치된 수련생을 위해 다른 수련생이 와서 안전하게 귀가했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하

루 밤낮을 쉬지 않고 발정념을 했던 일이 기억난다.

또 한번은 국가안전부 특무(스파이)에게 납치돼 비밀리에 불법 구금된 수련생이 있었다. 수련생 가족은 지역과 성도(省都)를 전전하며 거대한 저항을 뚫고 비밀 구금 장소를 찾아내 구출에 나섰다. 매일의 상황은 당일 바로 공유돼 인터넷에 폭로됐고, 해외 수련생들도 제때 협조해 전화로 구출을 도왔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정념을 했으며, 어떤 수련생은 권선문(勸善文)과 진상 자료를 감옥 소굴의 높은 담장 안으로 던져 넣기도 했다.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특무는 “전부 인터넷에 올렸더군”이라고 말했다. 본래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될 비밀 특무 기관이었으나 더는 비밀이라 할 것도 없게 됐다. 납치된 수련생도 소굴 안에서 협조하지 않고 진상을 알리며 단식으로 맞섰다. 정체의 노력과 사부님의 도움으로 납치됐던 수련생은 한 달여 만에 정념으로 걸어 나왔다.

어느 수련생의 자료점이 노출됐을 때의 일이다. 사람은 이미 안전하게 철수했지만 방 안에는 컴퓨터와 프린터 등 대법 자원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근처에 사악한 자들이 망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수련생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인식을 통일하고 발정념을 하는 가운데 차를 가진 수련생이 건물 입구에 차를 세우자, 수련생들이 짐 보따리를 차에 싣고 신속히 이동해 모두 안전하게 철수했다. 근처에서 몇몇 그림자가 기웃거렸으나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다.

모든 파룬궁수련자의 노력 덕분에 현지 환경은 갈수록 좋아졌다. 구역마다 협조인이 있어 사부님의 정법 노정을 적극적으로 따라갔으며 중요한 일은 늘 명혜망을 확인했다. 기술을 아는 수련생

은 이타적으로 기술을 보급했고, 대형 자료점은 점차 소형화·가정화됐다. 나이 많은 수련생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자유자재로 다루게 됐다.

현지의 사악함을 폭로하기 위해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협조한 적도 있다. 감옥 소굴 악한 경찰의 가족 아파트 부근에서 진상 자료를 배부하던 수련생이 “자료가 이것뿐인가요, 너무 적어요”라고 물었다. 안전을 위해 빨리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도록 적은 양을 배정했던 협조인은 조금 민망해졌지만, 수련생들은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에 파룬궁수련자를 가장 가혹하게 박해했던 모 구역 국보대장은 수련생을 찾아와 “우리집 근처에는 자료를 붙이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수련생이 그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자 그는 결국 탈퇴까지 했다.

당시 진상 자료는 도시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다. 심지어 자료를 배부하러 갔다가 이미 다른 수련생이 배부한 것을 발견하는 일도 잦았다. 나중에는 중복과 누락을 피하고자 구역을 나누기도 했다. 어떤 수련생은 “감시 카메라는 사람을 막을 수 있어도 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라며 의연하게 정진했다.

얼마 전 직장에 신입 동료가 왔다. 기회를 보아 진상을 알렸는데 뜻밖에도 삼퇴부터 파룬따파가 좋다는 찬동까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혹시 이전에 다른 수련생에게 듣고 중복 탈퇴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다시 물어보니, 그는 집 대문에 붙은 진상 자료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당신들에게는 명혜망이 있잖아요”라는 그의 말에 나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그런데 오랫동안 자료를 보지 못했어요”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진정한 착실한 수련을 해내지 못해 법리에 대한 인식에 부족함이 많았다. 정체와 협조라는 명목하에 심성을 제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사부님의 정법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크나큰 손실을 초래했다. 어떤 수련생은 납치돼 장기간 수감됐고, 어떤 이는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자료점이 파괴되기도 했다. 피와 눈물의 교훈 속에서 성숙해졌지만 세월이 흐르며 일부 수련생들은 다른 극단으로 치우쳤다. 부지불식간에 법공부 팀을 떠났고 박해에 맞선 협조에서도 멀어졌다. 자신의 안전을 과도하게 보호하느라 필요한 수련환경을 잃었으며, 혼자서만 활동하는 독불장군이 됐다. 서서히 법공부도 게을리하게 됐고 사람 구하는 일에도 소홀해졌다.

나 역시 오랫동안 나태했다. 최근 다시 법공부를 하며 정진하려 한다. 법공부 중에 대법은 줄곧 나를 일깨워주셨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셨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었고, 법리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과거를 돌이켜보며 깨닫고는 눈물을 쏟았다. 과거 내 게도 분명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근거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먼지가 쌓인 지 오래됐다. 현재의 내 모습과 과거를 비교해 보니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예전에는 누군가 사부님과 대법을 비방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팠고, 누가 박해받는다든 소식 들으면 얼른 수련생을 찾아가 대책을 상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동료가 심하게 박해받는다든 소식을 들어도 잠시 마음이 아픈가 싶더니 이내 ‘그에게 누락이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이겠지’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마비돼 속인 일에는 관심을 두면서도 수련과

사람 구하는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자주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저 수련생의 삼퇴 인원 누계가 이미 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믿기지 않는 격차를 보며 반성한다.

이 글을 쓴 것은 나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수련생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다. 우리 모두 먼지를 털어내고 당초의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자.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자 세월을 거슬러 이 세상에 올 때 지니고 온 유일한 보배일 것이다. 사부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반드시 잡아야 하며, 자신과 자신이 책임진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수련생 여러분, 초심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시간을 아껴 만회하고 정진합시다!

사부님께서 명시하셨다. “수련을 처음같이 하면, 반드시 성취한다!”(각지 설법 13-2014년 샌프란시스코법회 설법)

자료점과 법공부 팀을 세우는 과정에서 심성을 제고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올해 59세로 1997년 4월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험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세상의 희로애락을 다 맛봤습니다. 파룬따파의 인도와 사부님의 자비로우신 보호 아래 29년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경지가 끊임없이 제고되고 몸이 정화되면서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며, 홍진(紅塵) 속에 가라

앗지 않게 됐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천 마디 만 마디 말로도 파룬따파와 사부님에 대한 감사함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수련생들과 제 수련 체험을 나누려 합니다.

1. 가정 자료점을 세우다

2002년, 공안이 시 전체 대법제자를 대대적으로 납치할 때 대부분의 젊고 유능한 수련생이 납치돼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수련생이 극히 적어 새로운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수련생이 저를 찾아와 자료를 만드는 일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대법이 어려움에 처하고 수련생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나서서 대법제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반에 가서 간단한 조작법을 배웠고, 한 달 후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자료점을 세웠습니다.

당시 박해로 인해 우리 둘 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되는 수련생들이 소모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자금 관리에 있어 우리는 스스로 엄격히 요구했습니다. 자금은 오로지 소모품 구매에만 사용했고, 자료점의 다른 지출은 모두 자비로 부담하며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해가 매우 광적이라 수련생이든 일반인이든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료를 만들 장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와 협력하던 수련생은 박해를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고, 우리집도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수련생이 빈 방을 제공해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알게 돼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집의 열악한 창고를 선택했는데, 수련생은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사방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손가락이 굳었고, 두꺼운 솜옷과 솜바지를 입어도 추위가 뺏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전기담요를 켜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전기요금은 수련생이 내주는 것이라 자료를 만드는 데만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외출을 줄이려 점심은 굶었고,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는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이 방이 1층이라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덥고 답답해 조건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자료 제작에는 한 번도 지장을 주지 않았고, 품질도 대충하지 않고 최대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했기에 자료점은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자료를 만들던 수련생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노출될까 봐 제가 소모품 구매를 맡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자전거를 타고 컴퓨터 상가에 갔는데 사장이 저를 보고 “제 물건은 당신을 위해 들여놓은 거예요. 당신만큼 많이 사는 사람이 없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긴장이 됐습니다. ‘이러다 사장의 주의를 끌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건을 챙겨 자전거를 타고는 곧장 돌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길을 돌아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두려운 마음이 컸고 박해를 부정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가게를 이용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않으며 지혜롭게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점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우리의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2. 수련생과 협력해 정체를 조율하다

수련생 L 언니는 지역 수련생들을 조율해 하나의 정체(整體,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련생들이 더 빨리 향상해 더 많은 증생을 구원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함께 협력하길 제안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법공부 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소그룹을 나누고, 나이와 정진 상태를 고려해 팀을 짰습니다. 더 잘 협력하고 빠르게 향상할 수 있게 했으며, 안전을 위해 각 팀은 6명을 넘지 않게 했습니다.

팀을 나눈 후에는 둘이서 각 수련생의 집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수련생마다 집착이 다르고 가정환경도 달랐습니다. 가족이 지지하지 않거나 두려움이 커서 참여를 꺼리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 버는 데 바쁜 경우, 조율하는 수련생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등 다양했습니다. 이런 수련생들을 대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에서 교류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착실히 수련하기로 했습니다.

한 노년 수련생의 집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장사를 하며 손자를 키워야 했기에 매일 일찍 나가 늦게 돌아오느라 법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시간을 내어 만났는데, 그녀는 법공부 팀 참여 여부 대신 집안일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졌는데 제가 그럴수록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버스를 30분이나 타야 했고 막차가 끊길까 봐 마음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닦아야 한다. 왜 조급

하고 답답한가? 집에 가지 못할까 봐, 택시비가 많이 들까 봐, 걷기에는 너무 멀어서다. 이는 이익에 대한 마음이고 고생을 피하려는 마음이다. 수련생의 사소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짜증과 인내심 부족이다. 이런 사람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마음이 있겠는가? 선한 마음 없이 어떻게 수련생을 도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부님의 정법을 도울 수 있겠는가?’ 저는 즉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해지자 수련생도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의 법공부 팀 결성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수련생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가장 힘든 고비였습니다. 쟁투심이 강한 저는 그런 수련생을 대할 때 반감과 무시 등 많은 사람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한번은 제가 거침없이 그 수련생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수련생들에게 우리가 조직하는 법공부 팀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는 L 언니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교류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제압하는 방식은 분명 안 되며, 사부님께서 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동요하지 말고 관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배척하지 않고 다른 수련생들과 똑같이 대했으며, 그녀가 가져다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안으로 찾아 쟁투심을 제거하며 자비를 닦았습니다. 수련생들과 심도 있게 교류하고 여러 어려움과 사람마음의 교란을 극복한 끝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L 언니는 수련생들과 함께 법공부를 하며, 자주 나가서 대면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수련생을 이끌어주어 모두 함께 법에서 공동으로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한번은 어느 팀에 법공부하러 갔는데, 그 집 수련생이 파출소에서 자기 집을 감시하고 있으니 더는 수련생들이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한 수련생이 바로 예전에

방해하던 그 수련생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에 대한 반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수련생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집에 가서 법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합한 장소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걱정이 돼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공부 후 모두가 이 일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각자 두려운 마음이 없었냐고 물었고 모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 마음을 없애고 이 일을 통해 심성을 제고합시다. 하지만 수련생의 입장도 생각해 하니 임시로 장소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시다.” 그러자 한 수련생 언니가 자기 집으로 오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방해꾼처럼 보이던 그 수련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안으로 찾아 자신의 사람마음, 예를 들어 쟁투심 등을 찾아내고 선한 마음으로 그녀의 영향을 받은 수련생들을 대했습니다. 한동안 이 지나자 아마 그 수련생도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것인지 스스로 물러나 더 이상 다른 수련생들이 팀 법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법공부 팀이 세워지고 정체가 형성되자 수련생들도 향상됐고 모두가 단체 법공부의 좋은 점을 느꼈습니다.

이번 정체 협력에 참여하면서 제 심성도 제고됐고 어떻게 정체를 조율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련생을 생각하고 매사에 안으로 찾으며 자신에게 엄격하고 수련생에게 관용하면 사부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수련생을 정념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교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수련생들과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수련생을 정념으로 대하는 것인지에 대해 교류해 보고자 한다.

1. 사악한 소굴에 갇혀 박해받는 수련자를 대하는 태도

한번은 아주 훌륭한 수련생이 뜻밖에도 또다시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발견하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법공부 팀에서 수련생들에게 이런 심정을 털어놓았을 때 한 수련생이 무심하게 한마디 했다. “그녀에게 분명 누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녀에게 누락이 있으니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련생으로서 박해받는 수련생의 면전에서든 뒤에서든 그들의 정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이전에 또 다른 수련생이 있었는데, 사악한 소굴에서 나온 이후 그곳에서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자신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박해받게 된 다른 수련생에 대해 말할 때는, 매우 사악해서 그가 꼭 버터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나는 “왜 그에게 ‘그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일념을 더해주십니까? 수련생이 어찌면 아주 잘해 예정보다 일찍 사악한 소굴에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2. 색욕의 잘못을 범한 수련생을 대하는 태도

어떤 수련생들은 색욕의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데, 모두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 사부님께서도 법에서 우리에게 매우 엄숙하게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수련생은 이미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이는 박해를 받았으며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수련생들은 이에 대해 그 수련생이 무엇무엇을 했다며 흥미진진하게 떠드는데, 그 뜻은 그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기에 마땅히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식이다.

수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대부분 수련생은 깊이 체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련생이 명백한 상태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마도 아주 먼 연대에 구세력에 의해 안배됐거나 구세력이 그들에게 함정을 설치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단계까지 유도해 사부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수련생의 정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수련생 앞이든 뒤든 흥미진진하게 이런 일을 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수련생과 방관자)의 각도에서 본다면 그것은 구세력의 잘못이며, 우리는 수련생의 정념을 강화해 주어야지 구세력의 각도에 서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웃어서는 안 된다.

수련 중에서 사부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무한히 포용해주시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와 똑같이 힘들게 수련하는 수련생에게 그토록 선하지 못하게 대하는가? 수련생에게 닦아버려야 할 집착심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으로서는 전력을 다해 그들의 정념을 강화해 주어야지 구세력처럼 돋보기를 들이대고 수련생을 보거나 속인처럼 남의 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수련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데, 그들은 우리의 동반자이자 가족으로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 속인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떠한 수련생들은 인내심 있게 진상을 알리고 희망을 주며 아름다운 미래를 선사한다. 그런데 우리와 고난을 함께하는 소중한 수련생에게 도리어 악의를 내보내는 것은 옳

지 않다. 선의로 수련생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수련인의 정념이며, 정면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일으켜야 하고, 일시적으로 정면적인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념으로 대하고 타인을 선하게 대해야지 자신을 방종해 구세력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수련생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매번 자신이 구세력 편에 서기로 선택할 때 수련생에게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세력에게 자신을 박해해 달라고 초대해 당신까지 끌어내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 전통문화에서는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 비로소 성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은 아직 기억하는가? 수련의 요구는 모두 알고 있듯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모두 안으로 찾아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부딪혔는지, 자신에게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 제고가 필요한지 보아야 한다. 무언가를 들었다고 해서 한가하게 뒷말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 수련인이 원해야 할 바가 아니다.

RTC 논란에 직면해 안으로 찾을 기회를 잡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RTC 플랫폼에 여러 논란이 있으며, 주로 어떻게 진상을 알릴 것인가 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며, 더욱이 여러분의 지적을 바랍니다.

저는 스스로 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최전선에서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들, 특히 오랫동안 견지해 온 분들을 항상 매우 존경해 왔습니다. 나중에 글쓰기 팀이 자료 정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문득 깨달음이 있었는데, 수련생들의 유창한 언변에는 후원이 있었으며 역시 모두가 합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 자신도 많은 진상 원고를 보았고 어느 정도 쓸 수도 있게 되었지만, 중국인을 만났을 때는 여전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련생들의 조리 있고 근거 있는 설명은 마음을 써서 외우고 기억하며, 반복해서 연습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련생들이 전화할 때 각종 좋지 않은 반응에도 태연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낯선 이와 친구처럼 매끄럽게 대화하고,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인내심 등을 보며 저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것 역시 수련 상태의 반영이며, 더욱이 우리의 수련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수련생이 견지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진상을 알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일 것입니다.

RTC 플랫폼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저는 그동안 보고 듣고 생각한 바에 근거해 이것이 아주 좋은 ‘안으로 찾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수련인이기에 마주치는 모든 일, 특히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들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안으로 찾게 하고, 그 속에서 제고하게 하는 좋

은 기회입니다.

이 기간 일부 수련생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저 자신에게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야 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마침 속인 업무 중에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동료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조짐이 보였는데, 제가 아직 입사 학습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전 경험이 있다 해도 결국 새로운 회사에 들어온 것인데, 스스로 잘났다고 여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의하게 된 점은, 자만심이 사실 자신으로부터 많은 학습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물결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곧 퇴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결국 마지막에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신입니다.

2. 절대로 돋보기를 들고 타인의 부족함을 봐선 안 된다

최근 저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마치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며, 심지어 때로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만든 원인인 집착심까지 매우 분명하게 보고 조목조목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점이 있는데, 상대방의 부족함을 본 것은 어쩌면 제게도 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저 역시 이 층차에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제가 자신의 각도와 집착에서 출발했기에 사람과 일을 이리쿵저리쿵 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위해 문제를 찾아준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자신의 생각으로 타인을 바라본 것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왜 고치지 않는지, 왜 수정하지 않는지, 왜 안으로 찾지 않는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제가 얼른 안으로 찾아 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정말로 수정하고 잘 수련한다면 상대방을 볼 때 이해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이며, 심지어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기도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자신의 교만함과 남을 깔보는 마음을 발견한 후, 동료들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서로의 관계도 갑자기 훨씬 편안해졌고 제 마음에도 따뜻함과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이 매일 원망이 가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본다면 아마도 상대방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제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선(善)의 힘을 느끼다

최근 마침 사부님의 《각지 설법5》 ‘2004년 미국서부법회 설법’을 공부했는데, 그중 한 질문에 대한 사부님의 답변을 통해 선의 힘을 깊이 느꼈습니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 냉정(冷靜)하지 못하고 언어가 과격합니다.

사부: 우리 대법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선념(善念)에 입각하여 냉정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든 아니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든, 모두 사람들이 대법제자의 아름다움과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보게 해야 하며, 어떠한 과격한 일도 절대로 하지 마라. 당신이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 진상을 알리는 중에 다

른 사람에게 과격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른 일면(正面)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선(不善)은 독해를 받은 사람의 사상 속의 그런 사악한 요소를 해체 시킬 수 없으므로, 당신은 바른 일면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선(善) 그것은 가장 해 낼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상태도 아니며, 선은 진정으로 내심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며, 그것은 수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체현되어 나올 수 있다. 중생들 앞에서, 당신의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당신의 염(念)이 움직이자마자, 좋지 않은 요소를 바로 해체 시킬 수 있고, 세인들을 독해하는 것과 사람의 사상요소 중의 좋지 않은 것을 바로 해체 시킬 수 있어, 사람은 알게 되고 당신은 그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진정한 선(善)의 강대한 역량의 작용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체 시킬 수 없고, 당신은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특히 극단적으로 하는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데, 절대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바, 바로 당신이 수련한 능력이 체현되어 나오지 못하고, 당신의 선(善)도 체현되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모두 대항해서 하거나 싸우려는 생각을 품고 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 맞지 않는 것으로서,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설사 영사관에 가더라도 그러하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역시 慈悲(츠페이)해야 한다. 사악한 생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바, 우리가 발정념 중에 청리하고 있는 그러한 인류에 속하지 않는, 사악한 박해를 만들어 내는 요마귀괴(妖魔鬼怪), 그러한 썩어빠진 귀신, 흑수(黑手)는 당신이 어떻게 대해도 모두 문제가 없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善)해야 한다. 사람

을 구도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구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대해서 선하지 않다면 당신은 사람을 구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수련생 간의 논쟁도 마치 속인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과 같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 한다면, 상대방의 반발을 사기 쉬워 각자 자기 말만 하며 양보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법(法)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며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들은 후, 저는 절대로 사부님께서 설법하신 법에 대해 함부로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현재는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수련이 끊임없이 추진됨에 따라 또 다른 이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문구라도 다른 수련생은 또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일깨워 준다면 아마도 서로 영감을 얻어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류할 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며, 상대방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도록 계발해 주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한다면 더 잘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상을 알리는 것과 유사하지 않은가요? 때로는 중국공산당(중공)의 사악함을 매우 엄숙하게 서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통적인 좋은 어휘로 분위기를 완화하며 상대방이 전통적인 이념을 떠올리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대법의 아름다움, 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상대방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만 말해

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생마다 각자의 판단력이 있으니, 서로 다른 시기에 따라 언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말이어야 그 선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사명 저버리지 않기

최근 아마도 많은 수련생이 어떤 충격과 파동을 겪었을 것이며, 수련생 간에도 신뢰의 도전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의 진상 원고가 좋고 나쁜지를 다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더 많은 사람이 진상을 더 잘 알게 하려는 일념뿐이라면, 아마도 사부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묘필생화(妙筆生花, 글솜씨가 매우 뛰어남)하게 하시어 쓰인 것들 모두가 매우 힘 있는 원고가 될 것이며,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원고를 공유한다면 거두는 효과가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에너지를 상대방의 원고가 어떻게 좋지 않은지, 어떻게 적합하지 않은지 분석하는 데만 쏟는다면 본말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 최전선에서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들은 현재 사람들의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화해야 상대방을 더 잘 감동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반면 글쓰기 팀은 이러한 정보들을 결합하여 자료를 찾는 데 치중함으로써 표현을 더 조리 있게 만들고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들을 위해 준비 작업을 해주는 것이며, 결국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똑같은 한마디인데 왜 어떤 사람이 말하면 상대방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5. 두려워하는 마음 제거하기

과거에 저는 자주 침묵하는 다수 중의 일원이기를 바랐으며, 그
 래야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보며 제
 이런 마음이 좀 열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듯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물었습니다. ‘판단
 을 잘못해서 타인을 오해할까 봐? 잘못할까 봐? 일이 생길까 봐?’

사부님의 ‘2004년 미국서부법회 설법’은 저로 하여금 사부님의
 무량한 자비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으며, 제 두려움 뒤에 숨은
 사심(私心), 즉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마음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수련생 교류 글에서 본 내용인데,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사부님의 정법(正法)을 돕는 작용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려
 울 게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잘못을 범하는 것은 무섭
 지 않지만, 자신의 집착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집착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저는 자
 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조심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좀 부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갈등과 충
 돌은 침입한 바이러스와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각자 싸우게 하여 각개 격파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련인이 안으로 찾는 것은 자동 복구 기제와 같아서
 외부의 샷된 것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중의(中醫)에
 서 말하는 “정기가 안에 있으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正氣存內,
 邪不可干)”라는 말과 같습니다. 매번 겪는 듯한 ‘외사(外邪)의 침

입'은 어쩌면 우리가 정기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법을 함께 수련하고 같은 항목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시에 했던 약속이자 만고의 기연(機緣)이 지금 이 시점에 실현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만약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인해 우리 정체(整體)의 힘이 손실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상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원고모집 교류 중 언니의 몸에 나타난 기적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중의 기적은 수천만 가지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관념이 바뀌고 부패된 물체 없애니 광명이 나타나네” [홍음-신생(新生)]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했습니다.

2025년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이 시작된 어느 날 아침, 지역 협조 수련생이 찾아와 한 노년 수련생을 인터뷰하러 가자고 권했습니다. 협조 수련생은 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주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뒤 불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70세 정도인 그 노년 수련생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초면이었던 그녀는 제 인터뷰에 그리 열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인터뷰한다고요? 수련을 잘못해서 내세울 게 없어요. 제 병업 고비가 이렇게 심각한 걸 좀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 보니 다리와 몸이 약간 비틀려 있었고, 수련인 특유의 가볍고 활기찬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배달하러 온 청년을 맞이하거나 손님들에게 상품을 추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사이 다른 수련생도 들러 잠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들에게 술맛을 보게 하며 가격을 흥정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은근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우리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라며 원망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본론도 꺼내지 못한 채 헛걸음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도 거른 데다 날씨까지 더워 목이 몹시 탔지만, 저는 이 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서 예전에 앓던 병이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럼 지금 이 병업은 언제 나타났나요? 그 무렵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약 17~18년 전 어느 날, 그녀의 조카가 무례한 말을 내뱉어 그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분한 마음을 품은 채 형님 댁에 갔더니, 형님은 마침 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토마토를 따고 있었습니다. 하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순간 ‘화가 났을 때 토마토를 먹으면 병이 멎는다’라는 속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감히 먹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화가 좀 풀린 것 같아 토마토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자마자 위장이 더부룩해지더니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아래가 안으로 압박받는 느낌이 들면서 왼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터

질 듯 괴로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덩어리가 다리까지 압박해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화가 났을 때 토마토를 먹으면 병이 생긴다’라는 것은 분명 속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관념입니다. 그건 언니의 관념이에요. 언니는 고에너지 물질로 구성된 몸을 가진 수련인인데, 고작 토마토 따위가 언니를 좌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은 속인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언니가 속인인가요? 그게 바로 속인의 관념 아닌가요?!”

그 순간 언니는 무언가 깨달은 듯 “관념, 관념”이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그 검고 끈적끈적한 게 사라졌어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배를 손으로 짚으며 놀란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더부룩하던 게 정말 없어졌다고요?”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대법 수련 중에 신기한 일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언니는 벌떡 일어나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몇 번이고 꺾꺾 눌러 보았습니다. 과연 왼쪽에 튀어나왔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감격하여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연거푸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언니의 인식이 법에 부합하자 사부님께서 깨끗이 제거해주신 것이니,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그녀는 곧바로 정면을 향해 허리를 굽혀 합장하며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라 언니는 감격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17~18년 동안이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많은 수련생과 교류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제거하며 해체하라’는 말은 들었어도, 이것이 관념이라고 짚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정확히 그 마음을 짚어내고 인식해야 해요. ‘화가 났을 때 토마토를 먹으면 병이 생긴다’라는 건 속인의 관념이고, 그 정체는 바로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을 때 즉시 제거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발정념만 했으니 근본적으로 닿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면 그것이 옆에서 비웃으며 ‘잡으려 헛손질하는 것이 매우 가소롭다’(전법륜)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런 식으로 발정념을 해서 병업 가상이 사라졌다 한들,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제고가 된 걸까요? 사부님께서 언니를 제고시키려 일부러 그런 가상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자꾸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저는 “자꾸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없어진 건 없어진 겁니다. 원래 가짜였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라는 말에 언니는 17~18년이나 자신을 괴롭힌 고통이 어떻게 가짜일 수 있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젓가락을 꽂으면 꺾여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게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업 가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부님께서 이 관념을 이용해 언니를 제고시키려 하셨던 거예요. 17~18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

셨는데, 언니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구세력이 빈틈을 타 박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언니의 수련 길에 안배된 고비입니다. 화나게 하고, 토마토를 보게 하고, 먹고 싶게 만들어 이 관념을 드러내게 한 것이죠. 다 우연이 아니라 안배된 것이며, 목적은 관념을 없애 제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카를 원망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 마음 밑바닥에 원망심, 쟁투심, 질투심 같은 사람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언니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안으로 찾을 줄 몰랐어요. 발정념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 제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 직접 감당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사부님께 다 짊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뜻 사부님을 위하는 마음 같지만 이는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보가 어디 이뿐이겠어요? 살생도 수없이 했을 텐데 그걸 다 직접 갚으려 한다면 어떻게 수련을 하겠어요? 사실 1999년 ‘7·20’ 이전의 업력은 사부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시고, 대신 대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불필요한 난을 부르고 법을 실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니는 무척 미안해하며 “아이고, 제가 대법에 먹칠을 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 오늘의 기적이 바로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실증한 것 아니겠어요?”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가게를 나설 때는 이미 한참 오후였습니다. 갈증과 배고픔, 더위도 잊은 채 마음이 무척 상쾌하고 기뻐했습니다. 언니는 한결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즐겁게 뛰어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아쉬워하며 거듭 사부님과 수련생에게 감사를 전했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 함께 제고하자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수련은 바로 우리의 정념을 닦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속인에 머물면 속인의 결과가 나타나고, 수련인의 신념에 부합하면 신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원 공연 시청 시 위성 신호가 교란받은 것에 관해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올해 선원(神韻) 공연 기간에 우리집 지역 위성 신호가 심각하게 교란받았으며, 작년보다도 더 심각했다(기술 포럼을 확인해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심각하게 교란받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련생이 공연을 순조롭게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나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수련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순조롭게 시청하지 못한 것은 수련 과정에서 커다란 손실이다.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교류해보고자 한다.

1. 선원 시청에 대한 중시가 부족하다.

많은 수련생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데, 이는 중생 구도에서 선원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공연하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아주 많은 나의 법신과 아주 많은 신이 모두 하고 있다. (박수) 진감력(震撼力)과 사람에 대한 개변은 마치 예전에 내가 직접 법을 전할 때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박수) 사람에 대한 개변이 아주 컸다.”(각지 설법 8-2007년 뉴욕법회 설법)

2. 당(黨)문화 관념을 철저히 제거하지 못했다.

일부 수련생은 대중가요 창법에 익숙해진 나머지 선원의 벨칸토 창법을 낮설어한다.

선원 공연이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동화되지 않았다면, 수련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다. 가사는 사부님께서 쓰셨고 많은 곡도 사부님께서 작곡하셨으며, 창법 또한 사부님께서 오랫동안 실천된 신전(神傳) 창법을 선원 성악가들에게 전수해주신 것이다. 물건대 중국공산당(중공)에게 세뇌당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부적응이 있겠는가?

우리는 사부님께서 선원을 창설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곧 생각이 바로잡혔다. 선원 영상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한 후에는 세상의 음악이 선원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수준임을 절실히 느꼈다.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 이후로 해마다 선원 공연을 매우 소중히 여기게 됐다.

몇 년 전 일부 수련생이 선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선원 영상을 해외로 유출해, 결국 중국의 역대 선원 공연 영상이 폐기 통보를 받고 중국으로의 영상 배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지금도 매우 안타깝다. 그 이전까지는 매년 선원 영상을 5번 이상 시청했다.

그럼에도 사부님께서서는 해마다 중국 수련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여러 차례 시청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는 사부님의 자비와 은혜이니 수련생 여러분은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한다.

3. 역시 정념과 관련이 있다

위성 신호가 전반적으로 교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명혜망에서 알려진 인터넷 경로가 있지 않은가? 게다가 명혜망은 선원 방영 전야에 최신 버전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배포해 영상 재생 시 화면이 검게 나오는 문제를 해결했다.

테스트 결과, 자유문 8.05 버전과 아이보 TV로 선원 공연을 원활하게 시청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했다(무계는 계속 파룬궁수련생의 우회 접속 상태가 좋지 않아 테스트하지 않았고,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은 당시 테스트를 잊었는데 포럼의 다른 수련생 피드백으로는 문제없다고 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은 HDMI 고화질 케이블이나 VGA 케이블로 대형 TV에 연결해 여러 명이 함께 시청할 수 있으며, 고화질 케이블 연결 시 TV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는 하드웨어 호환성이나 드라이버 문제일 수 있고 노트북 소리가 작은 문제는 외장 스피커를 임시로 연결해 해결할 수 있다).

자유문은 평소 인터넷 접속 시 처음 20분 정도는 속도가 그다지 좋지 않고 때로는 신호가 전혀 없기도 하다(가상에 혹하지 마라. 보통 20분 후에는 심전도 회복처럼 신호가 다시 살아난다. 비록 첫 번째 연결이 실패해 '403 OK'라는 오류 코드가 뜨더라도 자유문을 종료한 후 다시 연결하면 보통 2번째에는 우회 접속에 성공하고 속도도 점점 빨라지며 매우 오랫동안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 이것이 새 버전 8.05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설 연휴 기간에는 놀랍게도 즉시 열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빨랐다.

우리집 TV 미러링 후 소리가 나지 않았고 노트북 소리는 평소 최대 음량으로도 매우 작은 데다, 밖에서 계속 폭죽 소리가 교란했지만 소리는 시종 선명하고 맑았다. 이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도움이다! (일부 수련생은 내가 선원을 매우 중시해 마음이 정성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회 접속 가능 여부를 의심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년간 우회 접속에 실패한 날이 1~2일에 불과한데 이 역시 개인 심성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 수련생은 설 연휴에 장소와 환경이 달라져 보안 라우터에 휴대폰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보안 라우터를 가져가지 않아 보안 방어막이 하나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수련생은 휴대폰 데이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데, 사실 휴대폰 데이터와 광대역 모두 지금은 실명제라 이론적으로 보안 수준이 동일하다. 장시간 우회 접속이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는 수련생도 있는데, 수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정념을 유지하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일부 수련생은 선원 프로그램들이 ‘매년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법을 공경하지 않는 일종의 표현이다.

5. 모든 수련생은 하나의 경락과 같아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정념을 품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의 정체를 이뤄 사악이 발붙일 곳도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6. 물론 사악의 이번 파괴를 겨냥해 단체 발정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아마 설 명절을 보내느라 바빠서 다들 N

TD TV 위성 방송을 겨냥해 발정념을 하자는 건의를 특별히 중시하지 않은 것 같다.

7. 매년 정월 대보름은 보충할 기회이며 매번 부족한 점을 찾게 된다. 이번에는 소홀히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수련생들은 1~2일 전에 미리 준비해 여러 경로를 시도해보며 한 가지 방식만 고수하지 말기 바란다. 다른 수련생들도 단체 발정념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8. 선원 시청은 법공부와 마찬가지로 너무 편하게 임하지 말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과정 중에 음식과 음료를 삼가고 시청 중에 체험을 나누는 것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마치 극장에서 관객석에 앉아 함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나눌 체득이 더 있지만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우리 모두 선원 시청을 중시해 새해에는 사부님께서 선원을 통해 각계 중생에게 내려주시는 도움을 빌려 넓은 관념을 더 많이 없애고 정념을 꾸준히 유지하길 바란다.

특별한 경험, 선원 자원봉사를 하며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기회를 빌려 2025년 멕시코 선원예술단 공연 기간 중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겪은 수련 체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대법제자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저에게 2025년 선원 항목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심성이 제고됐고, 안으로 자신의 부

족함을 찾는 법을 배웠으며,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게 됐습니다.

선원 홍보와 대표 과정에서 심성 제고

지난해 선원은 멕시코의 두 도시인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에서 5월부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스페인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선원을 홍보하기 위해 스페인어를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수련생에게 일상 용어 몇 마디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표 판매가 시작될 때까지 문장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2월 초, 우리는 멕시코시티의 한 쇼핑몰에 대표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스페인어로 선원을 홍보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법제자이며 사부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줍음과 긴장이라는 집착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한계가 있었지만, 진실하고 우호적인 마음을 품자 쇼핑몰 고객들이 제 소개를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고객이 표 두 장을 샀습니다. 그 순간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자 기적이 일어났고 자신감도 따라왔습니다.

3월에는 제 직장 근처의 대형 마트에 대표소를 설치했습니다. 퇴근 후 거의 매일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도왔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제가 서약을 이행하게 하시려는 자비로운 배치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 많은 교란이 있었는데, 특히 업무 면에서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업무가 매우 바빠 몸이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 제9장에서 말씀하신 “고난 속에 광명이 있음(柳暗花明又一村)”

이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념을 강화했습니다. 아직 사명이 있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중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저는 결국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들이며 헌신하는 수련생들을 보며 깊이 경탄했습니다. 이웃 나라 수련생도 지원하러 왔는데, 그들이 한 번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국인 수련생들은 스페인어를 못 했으나, 확고한 결심과 정념으로 여전히 순조롭게 표 판매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와 한 중국인 수련생이 전단을 돌렸지만 표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가지를 청해 인연 있는 중생이 표를 사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곧 한 가족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영어를 못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스페인어로 선원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으나 아이가 흥미를 보였고, 먼저 쇼핑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수련생이 번역 앱으로 관객 관람평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영상을 멈추게 하더니 극장의 좌석 배치도를 보여달라고 했고, 곧바로 표 세 장을 샀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좌석을 골라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 선원과 인연 있는 중생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언어는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체득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은 추구하는 마음

선원 공연 당일, 저는 무대 뒤 보안팀 업무를 돕게 됐습니다. 제작팀이 무대 준비를 위해 들이는 모든 노력을 목격했습니다.

발정념을 할 때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발정념 때만 졸렸습니다. 이것이 교란임을 깨달았습니다. 돌파하려고 노력하며 주의식(主意識)을 강화했지만, 더 졸음이 와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버텼고, 공연이 시작되자 정신이 번쩍 들어 끝날 때까지 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쓰다 보니, 과거에 발정념을 할 때 주의식이 강하지 못했고 생각이 산란해 사악의 힘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효과가 좋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발정념을 엄숙히 대하는 것에 관한 명혜망 기사를 읽고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공연 기간에 몇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한 선원 단원이 공연 중 심하게 구토하며 소업(消業)했으나, 대법의 위력으로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협조인과 후속 인원들이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보안팀 한 명은 극장에서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매표소의 수련생들도 장(場)이 매우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보안 협조인은 우리에게 임무가 있는 곳이 바로 책임이 있는 곳이니, 멋대로 자리를 뜨지 말고 발정념에 전념하라고 일깨워주었습니다. 다른 공간의 정사대전(正邪大戰)은 훨씬 더 치열할 수 있는데, 사부님께서 이미 대부분을 막아주셨기에 표면적으로는 이런 현상들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찾아 자신의 공간장을 정화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단체 법학습을 하고 발정념을 했으며, 상황은 곧 좋아졌습니다. 안으로 찾을 때, 저는 극장 안이 아닌 무대 뒤에 배치된 것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품고 마음이 들떠 멋대로 자

리를 비우기도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추구하는 집착이었습니다. 깊이 참회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내려놓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극장 안으로 배치됐는데, 놀랍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극장 안에서 우리는 사진 및 영상 촬영 금지 팻말을 들고 있었으며, 안에서 하는 업무도 쉽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은 공연이 끝날 무렵 어떤 관객이 영상 촬영하는 것을 엄격히 제지하자 그 관객은 처음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즉시 더 자비로워져야 함을 깨닫고 예의 바르게 감사를 표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퇴장했습니다.

선원을 관람하며

우리에게도 선원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릴 때 수많은 관객이 계속 입장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몽클했습니다. 그들 모두 구원받을 중생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극장은 거의 만석이었고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창세주께서 뭇 왕과 천신들을 이끌고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는 장면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도해주시고 제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며,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되는 소중한 기회와 인연을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무용극 ‘각성(覺醒)’에서 네 명의 승려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데, 세 명은 유혹에 흔들리고 한 명만이 확고하게 수련해 결국 성불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제자가 세간에서 수련하며 마주하는 온갖 시험과 교란과 같으며, 오직 확고해야만 정과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관객이 감동했습니다. 옆자리의 한 관객은 개막 때 눈물을

홀리더니 내내 기쁘게 관람했습니다. 그녀는 한 무용수의 의상이 멕시코 전통 의상과 닮았다고 말했는데, 제 생각에 멕시코 전통 의상도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깨달음과 기쁨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무위’를 체득

선원이 다른 도시로 순회공연을 갈 때 제 체류증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장 상사가 이민국 수속 문제를 우려해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낙담했습니다. 이미 항목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수련생이 발정님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 연락해 순조롭게 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상사에게 알렸는데, 뜻밖에도 그는 자기 허락을 먼저 받지 않았다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저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결국, 그는 끝내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련생들과 온라인 법학습을 하던 중, ‘무위(無爲)’에 관한 사부님의 법리에서 제가 참되게 사부님과 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으며 사부님께서 이미 배치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또 제가 상사에게 원망을 품고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에 제가 선원을 소개하고 중공의 박해 진상을 알리는 것을 지지해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본성은 선량하며, 제 집착 때문에 구세력이 빈틈을 탄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며 그가 선원과 대법을 지지한 덕분에 아름다운 미래를 갖

게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다음 날, 쉬는 날인데도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근할 때 상사가 고맙다고 하더니 선원 공연 시간을 물어보고는 여행을 허락해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친구가 차표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여행길에서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신 사부님의 자비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으로 찾는 것은 정말 수련의 법보(法寶)였고,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착하자 수련생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정념을 강화했으며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위’, 사부님과 법에 대한 믿음, 정진실수(精進實修)의 중요성을 체득했습니다. 또 마주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업력의 빚(業債)으로 인한 것이며, 사부님께서 제가 업력을 소멸하고 공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점은 예전에 법학습에 정진하지 못하고 연공을 진지하게 하지 않아, 시험 속에서 심성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진해 수련하고 다시는 유감을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수련생의 지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사전(史前) 서약을 이행하고 사부님 정법(正法)을 도우며 중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상이 현재 제 층차에서의 짧은 체득입니다. 법에 있지 않은 점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파룬따파하오’를 크게 외치자 102세 장인어른이 기적적으로 회복하다

[명혜망]

(중국 투고) 저는 2012년 12월 31일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입니다. 2024년 10월에 일어난 신기한 일을 위대한 사부님께 보고드리려 합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수련생인 아내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장인어른이 병세가 위중해 입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진단에 따르면 간에 복수가 찼고, 담낭에 결석이 있으며, 전립선 비대증에 당뇨병, 그리고 신장과 방광 등 모든 장기가 이미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더는 손쓸 방법이 없어 임종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대법만이 아버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병할 차례가 됐을 때, 수련생인 아내는 글을 써서 아버님과 소통했습니다(아버님 귀가 몹시 어두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염하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 몸이 좋아지실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벽 2시쯤이었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아주 큰 목소리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다른 병실 사람들까지 모두 잠에서 깨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올 정도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대법이 좋다고 한 번 외치신 후, 이튿날부터 조금씩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됐고 몸도 서서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 되셨습니다.

102세 노인이 온갖 장기가 쇠약해진 상황에서 정상인처럼 건강을 회복했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는 사부님께서 인간 세상에 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부님은 위대하십니다! 대법은 초범적입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홉 글자는 정말 신통하네요”

(중국 투고) 저는 올해 80세로 대법을 수련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수련 전에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비록 비바람을 겪었지만,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저의 정신(正信)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 제가 겪은 일을 적어 여러분과 나누며 대법의 초범성과 신기함을 실증하려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같은 지역에 사는 퇴직 대학교수 A 씨를 만났습니다. A 씨는 무척 활기차 보였는데, 저를 보자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설명 좀해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저를 근처 의자에 앉히더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무슨 일이 생기면 ‘과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는 ‘이 말이 정말 그렇게 영험할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최근 몸이 불편해서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기에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해봐도 나쁠 건 없으니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과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반복해서 묵념했어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그걸 염하고 나니 정말 몸이 가벼워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머릿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홉 글자가 그렇게 영험하다면 다른 글자 뒤에 ‘하오(好)’ 자를 붙여도 영험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중공) 정부 구호 뒤에 ‘하오’ 자를 붙여서 역시 아홉 글자로 만들어 외워봤어요. 그랬더니 외우자마자 머리가 마치 손오공의 금고주(머리띠를 조이는 주문)에 묶인 것처럼 딱 조여들며 너무나 괴로웠어요. 얼른 다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염했더니 머리가 다시 편안해지고 즐거운 기분마저 들었어요.” A 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이고 정법(正法)이라서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염하면 체내에 우주의 바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물론 염하는 사람의 믿음 정도와도 관계가 있어서 반신반의하면 효과가 좋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중공 악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邪教, 사이비 종교)인데 그들의 구호를 외운다고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 홍가(紅歌, 공산당 찬양가) 부르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대에 오르자마자 기절하고, 어떤 지휘자는 몸이 아팠으며, 어떤 사람은 노래만 부르면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안 부르면 낫기도 했잖아요.” A 씨는 그제야 알겠다며 감탄했습니다.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이 아홉 글자는 정말 신통하네요!”

지금 중국인 다수가 백신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모두가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염해 보신다면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함 이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른다

글/ 린창칭(林長靑)

[명혜망] 중화 전통문화에서 ‘하늘’은 사상과 의지를 지닌 보이지 않는 대심판관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선행에는 상을 주고 악행을 벌한다. 심판의 원칙은 곧 복과 화가 선악을 따른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면 백 가지 복이 내리고, 불선(不善)을 행하면 백 가지 재앙이 내린다.”(상서) “선이 쌓이지 않으면 이름을 이룰 수 없고, 악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망치기에 부족하다.”(주역)

당나라의 곽패(郭霸)는 잔인하고 혹독한 관리였다. 곽패는 일찍이 이사징(李思徵)을 무고하고 고문해 죽게 했다. 이후 곽패는 자주 이사징의 꿈을 꿔다. 이에 가족에게 승려를 청해 불경을 읽고 재를 올리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사징이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사징은 “네가 억울하게 날 모함했으니, 내가 이제 널 데려가겠다”라고 말했다. 곽패가 칼로 반격하자 이사징은 순식간에 구더기로 변했고, 구더기는 금세 썩어버렸으며 곽패도 그날 죽었다.

곽패가 자신이 해친 이사징을 본 것은 정말로 본 것일까, 아니면 마음이 허하고 두려워 환상을 본 것일까? 그가 인간 세상의 처벌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고 목숨으로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며, 전철을 밟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박해가 있는 곳에는 늘 무고와 음험함,

악랄함이 있다.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불법적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탄압한 이래로, 중공의 선전에 현혹된 일부 사람들은 박해 중에서 잔인하고 포악하게 굴었으나,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왕지중(王繼忠)은 전 허베이성 탕산(唐山)시 러팅(樂亭)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주임이었다. 그는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여러 차례 그에게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량한 이들을 박해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응보가 있다고? 난 이렇게 잘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큰소리쳤다. 심지어 자신에게 진상을 알려준 리쉐유(李學友)를 불법적으로 판결해 감옥에 보냈고, 이로 인해 리쉐유는 마비돼 침대에 누웠으며 그 아내는 충격과 두려움에 1년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왕지중은 2015년 3월 1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구멍이 뚫려 현장에서 즉사했다. 가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가 이미 다 마른 상태였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왕지중은 죽기 전 한동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들락날락하며 안절부절못해 이웃들을 불안하게 했다. 왕지중의 처남과 장인 역시 그 무렵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1]

왕지중 가족의 비참하고 처량한 결말을 수련자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박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수면을 취할 수 없을 때, 리쉐유가 겪은 감옥의 고통을 생각했을까? 그 아내가 느꼈을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을까? 그가 밤새 편치 못해 들락날락한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서였을까? 무엇을 누우치고 한탄해서였을까?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아무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초조함과 공포를 보았다.

수련자들은 적색 공포 속에서, 자신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실을 밝히고 진상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바로 왕지중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악행과 재앙, 남을 해치는 것과 자신을 해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서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속담에 “양심에 찢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무섭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대낮에 귀신을 보는 자들, 깊은 밤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악행이 불러들인 결과가 아닐까? 남을 해친 것이 처참할수록 그 공포는 깊어진다.

덩평(登封) 법왕사(法王寺)에는 이러한 대련(對聯)이 있다. “좋은 사람이 돼라, 마음이 바르면 몸이 편안하고 꿈자리가 안정된다.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귀신이 살핀다.” 비록 박해가 하늘과 땅을 뒤덮을지라도 도의를 굳게 지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절로 편안하고, 마음이 바르면 귀신도 방해하지 못한다.

진상을 읽어보길 바라며, 진상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진상은 선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며, 진상이 바로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다.

주:

[1] 명혜망 ‘과륜불법을 박해한 허베이성 중공 인원들이 업보를 받다’

안하무인에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까지

글/ 장자이(章嘉義)

[명혜망]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한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기세가 등등해 안하무인으로 굴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의 결말은 늘 매우 비참했다.

중국 역사상 유명한 ‘발호장군(跋扈將軍)’이 있다.(역주: 발호는 통발을 뛰어넘는 큰 물고기처럼 제어할 수 없이 날뛰다는 뜻) 『후한서』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어린 나이에도 총명해 양기(梁冀)가 교만하고 방자함을 알고 있었다. 일찍이 신하들을 접견할 때 양기를 지목하며 “이 자는 발호장군이로다”라고 했다. 양기는 이 말을 듣고 황제를 깊이 미워해, 곧 주변 사람을 시켜 독약이 든 수제비를 올리게 했고 황제는 그날로 붕어했다.

윗글에서 ‘양기’는 동한의 외척 대신이자 대장군인 양상(梁商)의 아들 양기다. ‘황제’는 한 질제(質帝) 유찬[劉縝, 유속(劉續)]이라고도 함, 138년~146년 7월 26일]을 가리키며, 재위 기간이 겨우 1년 4개월 만에 악한 신하에게 독살당했다.

『후한서』에 기록되길 “양기는 황제가 총명해 훗날 화근이 될까 두려워 곧 주변 사람에게 독을 올리게 했다”라고 했다. 양기는 질제의 총명함을 보고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측근을 시켜 독이 든 수제비를 만들었다. 한 질제는 이를 먹고 복통을 견디지 못해 급히 태위(太尉) 이고(李固)를 궁으로 불렀다. 이고를 본 질제는 “수제비를 먹었는데 지금 배 안이 답답하니,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살 수 있

을 것 같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양기가 바로 옆에 있어 “토하 실까 염려되니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가로막았다. 말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질제는 독이 퍼져 사망했다.

이고가 황제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자 양기는 이를 보고 자신의 죄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게 됐고, 이고는 그의 눈엣가시가 됐다. 양기는 이고를 모함해 감옥에 가두었다. 이고는 결국 옥사했고 그의 두 아들도 동시에 살해됐다. 대흥려 두교, 형주자사 오수, 요동태수 후맹, 낭중 원저, 부풍 사람 손분 등 정직한 많은 신하들이 양기의 의도적인 잔혹한 살해로 목숨을 잃었다.

서기 159년, 한 환제(桓帝) 유지(劉志, 132년~168년 1월 25일)가 친히 중신들을 소집하고 대중 앞에서 양기의 온갖 죄행을 선포한 뒤, 군대를 파견해 양기의 집을 겹겹이 포위했다. 양기는 자신의 죄가 하늘에 닿음을 알고 그날 아내와 함께 자살했다. 이후 양씨 일가의 모든 친족이 체포돼 투옥됐고,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처형됐다.

안하무인인 자는 한때 아무리 권력이 극에 달했을지라도 흔히 사악한 시대의 어리석은 광대에 불과하다. 폭정이 있는 곳, 탄압이 있는 곳에는 늘 그들의 오만방자함과 죄악이 존재한다.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불법적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탄압한 이래, 진상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중공의 박해 정책을 바짝 따르며 수련생을 잔인하게 박해했다. 예를 들어 자오춘보(趙春波)는 2002년 이후 장쩌민이 파룬궁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하던 시기에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쑹야산시, 치타이허시 국장 등의 직무를 역임했다. 그녀가 치타이허시 공안국장을 맡았을 당시, 2008년 3월 4일~13일 치타이허시에서 약 40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경찰에게 불법 가택수색을 당

하고 14명이 납치됐다. 2009년 9월 2일, 치타이허시 흥웨이진의 파룬궁수련자 류수링(劉術玲)은 현지 공안에 의해 하얼빈 마약재활소로 끌려가 2년형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2010년 7월 3일, 54세의 류수링은 하얼빈 여자 마약재활 노동수용소에서 박해를 받아 사망했으며 목에는 검은 피멍이 한 줄기 나 있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류수링은 경찰에 의해 쇠의자에 묶인 채 전기봉으로 지저저 사망했다.

2019년 11월 22일, 자오춘보는 집에서 투신해 사망했다.[1]

이런 일은 또 있다. 2021년 8월 18일, 전 치치하얼시 공안국장(성 공안청 당위 부서기, 상무 부청장) 가오더이(高德義)가 익사했다. 가오더이 재임 기간에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했다. 다싱안링 지역 파룬궁수련자 린궈잉(林國英)은 박해로 식물인간이 됐다가 이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치치하얼시 리후이핑(李惠豐)은 1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생전에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10만 볼트 초고압 전기봉에 충격을 받았으며, 2020년 1월 28일 겨우 48세 나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자오춘보, 가오더이 같은 자들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불법(佛法)을 모독하고 수련인들을 박해했다. 그들은 심성이 독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일선에서 직접 박해를 지휘하고 조종했다.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납치되고 모함당한 것은 그들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자가 가족과 헤어지고 집안이 망한 비극에서도 그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천리는 공정하며 하늘의 법은 공평하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한때 기세를 부릴 수 있으나 결국 흔히 가련하게 끝을 맺는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신께서 판단하신다. 악이

쌓이지 않으면 몸을 망치기에 부족하니, 죄악이 가득 찼을 때가 바로 응보가 나타날 때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아니라면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겠는가? 누가 스스로를 물에 빠뜨려 시신을 노출하겠는가?

2018년 이후 헤이룽장성에서만 6개 지급시 부시장이 투신, 익사, 자살 미수 등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두 중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수련생을 박해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끝없는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 결국 자해와 자살 등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설령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해도 죽은 뒤 지옥 형벌을 피할 수는 없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공의 폭력적 탄압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박해를 견디며 여전히 대중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다. 이는 여러분에게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다는 인과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지위가 아무리 고귀하고 권력이 아무리 현격하다 해도, 그것이 안하무인으로 굴고 잔인하게 행동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부디 전생에 덕을 쌓아 얻은 현재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에게 진상을 말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수련생들을 선하게 대해주길 바란다.

부디 진상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을 희망이자 미래의 복이며,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길이다.

주: [1] 자료 출처: 명혜망 ‘헤이룽장성 최근 몇 년간 6개 지급시 부시장 자살’



▲ 뉴질랜드의 중국 전통문화 구역 파룬궁수련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감사 증서를 수여한 왕거누이시 국회의원 칼 베이츠(오른쪽 두 번째)와 앤드류 트라이프 시장 (왼쪽 첫 번째). 파룬궁수련자들이 장기간 수련을 견지하며 眞善忍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베이츠 의원은 공감을 표했다. “진실과 선량함은 우리 지역사회가 마땅히 포용해야 할 아름다운 원칙입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22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898만 4270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